

멋보다 실용... 작은 '괴물'들이 달려온다

■ 파리 모터쇼 내달 2일 개막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한 파리모터쇼가 10월2일부터 16일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베르사이유 박람회장에서 열린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50여개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하는 이번 모터쇼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이다. 유가 급등과 온실가스 문제 등의 여파로 업계의 트렌드가 화려함에서 실용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소형차와 디젤차가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작고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일수록 보다 친환경적인 모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소형차는 대형 세단에 비해 연료를 덜 소모할 뿐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원재료나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든다. 작은 차를 타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인 셈이다.

이번 모터쇼를 통해 선보이는 신 모델 가운데 향후 유럽시장을 주도할 친환경 모델들을 소개한다.

◇기아차 '쏘울', 현대차 'i20'으로 유럽시장 공략=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번 모터쇼에 총 60여대의 차량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친환경차인 '쏘울(Soul)' 하이브리드, '씨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국내 업체 중 가장 넓은 2천24㎡(612평)의 전시공간을 확보했다.

기아차는 박스 형태의 신개념 CUV인 '쏘울'을 이번 파리 모터쇼 공개를 시작으로, 유럽(내년 2월)과 미국(내년 4월)에서 각각 시판한다.

현대차는 올해 연말 유럽에 출시되는 소

형 해치백 'i20'을 비롯해 총 20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친환경차인 'i20 블루'와 '싼타페 블루 하이브리드'도 처음 등장한다.

'i20'은 독일 뉘른하임의 현대차 유럽디자인센터에서 유럽 취향에 맞춰 개발됐으며, 유럽의 경쟁모델보다 실내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다.

◇GM대우, 쌍용차 SUV모델 출시=GM대우는 GM의 시보레 브랜드로 5개 차종을 공개한다. GM대우가 직접 개발한 7인승 미

(monocoque) 방식이 쌍용차 SUV 최초로 사용됐다.

기존의 쌍용차 SUV는 차량 바닥의 사다리 모양 구조물이 차체강성을 유지하는 '프레임(frame) 방식'이었다. 모노코크 방식은 프레임 방식보다 차체의 무게와 높이를 낮출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쌍용차는 또 '렉스턴 II',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등을 전시해 현재 보유중인 모델의 경쟁력을 알릴 계

량이다.

닛산은 도심형 전기차인 '누부(Nuvu)'를 내놓는다. 태양전지 역할을 하는 전면 유리 지붕이 특징이다. 분모는 'C30', 'S40', 'V50'의 친환경 디젤 모델인 '드라이브(DRIVE)'를 내놓는다.

◇포드·도요타·닛산 등은 미니카로 승부=포드는 이번 모터쇼에서 배기량 1.2ℓ 휘발유 엔진과 1.3ℓ 디젤엔진을 얹은 소형 해치백 '카(Ka)'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 차는 피아트의 미니카 '500'과 차의 기본 뼈대인 '플랫폴'을 공유하며, 스타일리시한 도시형 해치백으로 재탄생했다.

도요타는 올해 초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초소형차 'iQ'의 양산형 모델을 선보인다. 차체 길이가 3m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4인용 차량으로 꼽힌다.

이 모델은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99g에 불과하며, 추돌사고시 뒷좌석 승객 보호를 위해 커튼 에어백이 장착됐다.

스즈키는 12월부터 유럽에서 판매에 들어갈 경차 신형 '알토'를 공개한다. 시트로엥은 내년 2월 유럽 시판 예정인 소형차 'C3 피카소'를 공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차 'i20'



시트로엥 'C3 피카소'



포드 '카(Ka)'



도요타 'iQ'

현대차, 유럽 취향 맞춘 소형 해치백 'i20' 선보여

기아차 CUV 쏘울·GM대우 '시보레' 브랜드 공개

글로벌메이커 미니카 대거 등장...친환경 모델 경쟁

니벤 '시보레 올란도(Chevrolet Orlando)'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올란도'는 SUV·미니밴·왜건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통합형 스타일이 돋보인다.

또 이번 모터쇼에서는 GM대우가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J300'의 미국 모델인 '시보레 크루즈(Chevrolet Cruze)'도 실물이 처음 공개된다.

'크루즈'는 GM대우차가 생산하는 '라세티' 후속 모델로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로 최첨단 하이브리드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됐다.

쌍용차는 도시형 중소형 SUV 'C200' 콘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한다. 'C200'에는 금속 외피가 차체 강성을 유지하는 '모노코크

확이다

◇유럽은 '하이브리드', 일본은 '클린 디젤'=그동안 전 세계 하이브리드카시장은 일본차가 장악한 반면, 유럽은 친환경 디젤 모델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는 이같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푸조는 하이브리드 콘셉트카인 '프롤로그(PROLOGUE)'를 공개한다. 200마력의 고툰력을 내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09g으로 경차 수준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도요타는 배기량 1.4ℓ 급 소형 디젤 엔진을 얹은 도심형 SUV '어반크루저(Urban Cruiser)'를 내놓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행거리 1km당 133g인 친환경 차

▲파리모터쇼=올해로 79회를 맞는 파리모터쇼는 세계 최초의 모터쇼로 1898년 처음 시작됐다. 유럽에서 차를 판매하는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양산차의 판매 전략을 선보이는 성격이 강하다. 프랑크푸르트·제네바·디트로이트·도쿄모터쇼와 함께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힌다.

1942.11.15

국제보청기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동구평남동상행사지)

(062)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227-9970

기류용 특히 유용하진 않으나

쏟아지는 빗물까지 막아주는 신일종합의료매트

국내최대생산공장

판매가격 ₩ 22만 ~ 35만

가정용 1153x35400
신일매트 1455x35550

물온수 보일러 매트!!

100% A/S보증

TEL: 02-528-7400

TEL: 010-8141-2528

TEL: 011-9441-2021

푸른산 레크빌

분양/임대개시 <푸른산레크빌>

분양/임대개시 <푸른산레크빌>